

자동차산업

현대차, 미국 인센티브 YoY 감소 시작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4월 미국 SAAR 1,715만대 (+0.6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\$3,736 (+8.5% YoY)

4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영업일수 축소 (24일, -7.7% YoY)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-4.8% 감소됐다고 추정 (미국 M/S 1위 업체인 GM, 4월 이후 판매 실적 월간이 아닌 분기 기준으로 공개하기로 결정).

SAAR는 1,715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+0.6% 늘어났으며, 8개월 연속 1,700만대를 상회하며 안정적 수요 상황을 대변. 산업 평균 대당 인센티브는 \$3,736이었으며, ASP가 높은 SUV와 Pick-up 판매비중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+8.5% 증가.

현대차 5.6만대 (-11.1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\$2,961 (-5.5% YoY)

생산 및 판매 Mix 변화가 진행 중인 현대차 4월 판매, 예상대로 감소세 지속. 현지공장 생산축소 모델인 쏘나타 (-41% YoY), 아반떼 (-14% YoY)는 큰 폭의 판매감소 실현. 다만, 수출 SUV 모델인 코나 (+30% MoM, 3월 출시), 투싼 (+30% YoY)은 높은 판매증가를 기록. 전체 판매볼륨의 YoY 개선은 신형 SUV 쏘타페의 현지공장 투입이 예정된 6월 이후로 예상.

재고가 쌓여 높은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했던 Sedan 모델들의 생산축소로 평균 인센티브는 \$2,961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 (19개월만에 처음, 현대차 자체집계 기준 2달 연속 YoY 감소). 향후 생산 Mix 변화 지속으로 추세적인 YoY 인센티브 감소 전망.

기아차 5.1만대 (-5.2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\$3,894 (+20.0% YoY)

수출 모델인 스토티지 (+35% YoY)의 판매성장이 두드러졌으나, 영업일수 감소와 Sedan 모델 부진 (K3 -12% YoY, K5 -23% YoY)으로 전년동월 대비 -5.2% 판매 감소를 기록하며 기대치에 부합.

주요 브랜드별 YoY 판매볼륨 증가 폭

전체산업 -4.8%, 토요타 -4.7%, 닛산 -28.1%, 혼다 -9.2%, GM -2.7% (Auto Data 추정), Ford -4.5%, FCA +4.3%, VW +3.2%, BMW +4.2%, Daimler +2.1%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5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